

한국의 무속신앙과 일본신도(神道)에 대한 연구*

—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샤머니즘 사상」
을 중심으로 —

이 복 임**

(e-mail : danan01@hanmail.net)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습합문화에 의한 일본신도 |
| 2. 한국의 무당과 일본의 미코 | 5. 맺음말 |
| 3. 한국의 무속신앙과 유교 | |

キーワード：民俗宗教(folk religion), 巫俗信仰(shamanistic faith), 神道(shinto), 同質性(homogeneity), 特殊性(superiority), 習合(integration), シャーマニズム(shamanism)

1. 머리말

샤머니즘이란 초자연적인 존재(신령, 정령, 사령 등)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샤먼(shaman)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이나 종교적 형태를 뜻한다. 본래 샤머니즘이라는 말은 북아시아의 여러 종족과 우랄 알타이계의 종족, 고아시아족의 종교체계와 현상을 지칭한 것이었지만, 점차 종교학·민족학·인류학 등에서 세계 각지의 유사종교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샤머니즘이 처음 관찰된 곳이 시베리아이기 때문에 북아시아 민족 간에 행하는 종교현상으로 일컬어지며 점차적으로 샤머니즘 문화과동(Schamanistsche Kulturwelle)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39640]

** 한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에 의하여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남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등지에 분포하는 하나의 원초적 종교형태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 샤머니즘은 인간과 신령이 무당(종교적 능력자)을 통해 굿이라고 부르는 제의에서 만나 인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종교현상으로 무속신앙이라고 일컬어진다. 여기서 무속의 무(巫)는 조화에 있으며 이는 초월자와 인간과 무당이 신내림을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으로 모두가 고루 어우러져 삶의 부조화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갈등을 풀어보고자 하는 원형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래와 춤으로써 하늘과 땅, 신령과 인간이 하나로 융합되어 새로운 생명과 문화를 창조하는 원시적 종교형태라고 할 수 있다.¹⁾

반면, 일본의 샤머니즘은 신도사상으로 발전되어갔다. 신도는 다신교(多神敎)이지만, 조령숭배(祖靈崇拜)의 의미가 강하다. 또한 ‘야오요로즈노 카미(八百万の神)’라고 하는 수많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념이 일본본토와 아이누족(アイヌ族, 홋카이도(北海道)와 사할린, 쿠릴열도 등지에 분포하는 소수민족)에게 있었다. 일본고대 역사서 『고지키(古事記)』(712)에도 ‘카미’의 명칭이 붙어있는 말이 약 백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 붙여진 것뿐만 아니라, 위인·영웅·귀족 등이 신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일 양국의 유사한 우주관 속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띄우고 있는 샤머니즘 사상에 대해서 일본의 대중작가이자 역사소설가인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1923~1996, 이하 ‘시바’로 칭함)는 고대로부터 유입된 타종교와의 연관성에 주시하면서 그 인식의 차별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불교와 유교 등 외래종교의 유입에 의해 원시종교가 흡수 또는 배척됨으로써 민족성에 따른 상이한 형태로 존속해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샤머니즘이 일본국가의 신도로 발전하게 된 요인에 대해 밝혀가면서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찍이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샤머니즘에 대한 언급은 일제강점기에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와 아카마츠 치조(赤松智城)로부터 시작되었고 패전이후의 공백기를 지나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축적되어왔다.²⁾ 이러한 때 시바는 일본역사 중에 가장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배경으로 다

1) 유동식(1997) 『韓國 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 출판부, pp.54~56.

2) 이들의 공저는 「秋葉隆·赤松智城(1938) 『朝鮮巫俗の研究』 大阪屋号書店.」와 「秋葉隆·赤松智城(1941) 『滿夢の民族と宗教』 大阪屋号書店.」가 있고, 아키바 다카시의 대표논문으로는 「秋葉隆(1955) 「北アジアの原始宗教」 『アジア問題講座』 9, 創元社.」가 있다.

수의 역사물을 집필하며 일본의 우수성과 일본인의 저력 등을 돌출해내어 ‘시바사관(司馬史觀)’이라는 고유한 역사관을 형성해갔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의 민속종교에 대해서도 비교 서술함으로써 일본적 이데올로기를 한층 더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시바의 샤머니즘사상이 한국의 무속신앙과 일본신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색하여 비교학적인 시점에서 한일 간 토테미즘(totemism)에 관한 그의 역사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신과 인간세계를 연결하는 종교적 능력자인 샤먼의 역할로 한국의 무당과 일본의 미코(巫女)라고 하는 무속인의 행태와 원류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의 무속신앙과 불교·유교 등 타종교와의 상관관계와 일본의 신도와 샤머니즘의 연결성 등을 시바의 작품을 중심으로 재조명해보기로 한다.

2. 한국의 무당과 일본의 미코

샤머니즘에서 샤먼은 병을 치료하고 주술을 통해 이적을 행하고 영혼의 안내자(psychopomp)역할을 하며 사제, 신비가, 의사, 심지어 시인노릇도 하였다. 또한 샤먼은 고대 부족사회에서 족장이자 사제를 겸하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는 샤먼만이 고귀한 종교적 체험인 탈혼망아(脫魂忘我)를 통한 점신술의 전문가였기 때문이다.³⁾ 샤먼의 어원은 시베리아의 퉁구스어로 망아(忘我)상태 중에 지식을 얻는 종교적 능력자를 의미하는 ‘사만(saman)’에서 유래한다. 샤먼이 다른 주술이나 종교적 직능자와 다른 점은 초자연적 존재와의 관련방법에서 직접성에 있다. 직접성이라는 것은 샤먼이 자신의 혼을 육체에서 분리시키고 이 혼이 타계의 신령이나 정령을 방문해서 직접 접촉하는 것이며, 역으로 이들을 불러서 스스로 병의(憑依)⁴⁾되거나 직접대화해서 그 지시를 받드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무당으로 지칭하며 신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굿을 전문으로 하는 사제자(司祭者)를 뜻한다. 또한 무당은 무격(巫覡)이라고도 하

3) 엘리아데, 이윤기 역(2001) 『샤머니즘』, 까치, pp.23~24.

4) 병의(possession)는 엘리아데(M. Eliade)의 정의에 따르면 탈혼(ecstasy)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는 시베리아의 샤머니즘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이 두 용어를 구별하여 쓰고 있다. 탈혼은 무당의 혼이 육체를 이탈하여 신계를 여행하는 것이고 병의는 외부의 신령이 무당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다.

는데, ‘무’는 여성을, ‘격’은 남성을 뜻한다. 이들은 강신(降神)을 받아서 점이나 굿 등의 무의(巫儀)를 행하는 종교적 행위자이다. 주로 트랜스 상태를 통해서 강신을 받는 강신무와 가계에 의해서 세습하여 무업을 행하는 세습무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근대화와 함께 세습무는 조직이 해체되어 소멸되었고, 현재에는 강신무가 사적 레벨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무당을 중심으로 베풀어지는 종교현상을 ‘무속(巫俗)’·‘무교(巫敎)’ 또는 ‘무(巫)’라고 하며, 한국 샤머니즘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속신앙은 샤머니즘의 한계통으로 자연 및 역사·문화환경 안에서 특수하게 발달된 종교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일 것이다. 무속인들은 스스로 ‘변화된 의식상태(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은 변화된 의식상태에서 이승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세상으로서의 여행을 통하여 지혜와 힘을 얻고 그들의 지역사회를 돕는다. 강용기에 의하면 무속은 ‘무속인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화된 의식상태로 들어가 종종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여행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하거나 그들의 영혼이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련의 전통의식’으로 보고 있다.⁵⁾

반면 일본에서는 무당 혹은 무녀(巫女)에 해당하는 말로 ‘미코’라고 하는데, 한자어로 ‘巫女, 神子, 巫子’ 등 다양하게 표기되고, 가미가카리(神憑か)를 통해 신령의 뜻을 탁선(託宣)하는 등의 주술·종교적 능력을 지닌 여성을 일컫는 것으로 한국의 사제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현재는 주로 신사(神社)에서 신직을 도와 신도의례 및 사무를 수행하는 미혼의 젊은 여성을 지칭하지만, 원래 일본 종교사에서는 단지 신사에만 국한된 존재는 아니었다. 신사와 상관없이 촌락에 정주하거나 혹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무의를 행하는 주술적 기도사로 통용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일본의 미코는 크게 신사와 관련된 범주 및 신사와 무관한 민간의 미코로 대비할 수 있다.⁶⁾ 고대 일본의 무녀는 『고지키』·『니혼쇼키(日本書紀)』(720)의 아마노이와토(天岩戸)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을 섬겼던 야마토토토히모모소히메노 미코토(倭迹迹日百襲姫命)와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초대 황후 및 『삼국지(三国志)』 「위지 왜인전(魏志倭人伝)」에 나오는 야마타이국(邪馬台国)의 여왕 히미코(卑弥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의 사제로서 주술적 능력을 갖춘 존재로, 신성한 왕권의 확립에 있어서 중심적 역

5) 강용기(2009) 「샤머니즘의 환경윤리:한국의 무속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화저널』, p.9.

6) 国学院大学日本文化研究所編(1999) 『神道事典』, 弘文堂, p.153.

할을 수행한 무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대에는 남성 신적인 간누시(神主)·하후리(祝)·네기(禰宜) 등으로 대체됨으로써 미코가 오늘날과 같은 보조적 신직으로 전락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신사의 미코와는 별도로 각지에 정착하거나 떠돌아다니며 사자(死者)의 구치요세(口寄世)나 주술적 기도 등을 수행하며 일본의 민간신앙과 구전문예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일부지역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무당이나 무녀에 대해서 시바는 시베리아 통구스종족에서 발생한 샤먼은 우랄알타이어족들이 공유하여 들쭉임을 당해 이상한 정신적 전환을 일으키는 자라고 정의하며, 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신을 부른다는 짐승 특히 여우에 홀린다는 샤머니즘 등의 민속학적인 고문화의 계보는 시베리아 구만주, 조선반도, 일본이 한줄기 물과 같이 흘러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무녀계통은 북방적 요소가 많고 일본도 북방계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하며, 조선의 민속신앙이 일본으로 유입되어 주류를 형성해가는 샤머니즘의 원상같은 것이 양국에 존재한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① 샤머니즘은 아득한 고대, 시베리아의 통구스종족으로부터 발생했다.

이 종족의 언어는 터키어, 몽골어, 고유만주어, 한국어와 더불어 일본어와도 친숙한 동료(우랄·알타이어족)라고 해도 좋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일본어의 먼 조상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언어민족은 커다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샤머니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홀한 상태가 되어 마귀가 씌인 병의상태라는 이상한 정신전환을 일으킨다. (중략)

그런데, 몽골에서는 근대이전에 샤먼은 남녀로도 세습하였다. 무인을 몽골어로 이티간이라고 하지만, 듣기에는 이티로 들린다. 일본어의 이치코나 이타코와 관련이 있는 건지. (중략)

현용준교수에게는 『제주도무속의 연구』(제일서방간) 라는 저서가 있다. 북아시아 동아시아 전체의 시야로부터 정밀하게 초점을 맞춰 제주도 샤먼에 정확한 핀트를 맞춘 것으로 도쿄대학교는 확실히 이 저작으로 그에게 사회학박사를 주었다. 이 책을 읽으면, 민족에 있어서 언어와 원시종교라는 이 두 개의 천성에 관한 한, 시베리아 통구스족이나 몽골고원의 몽골인, 소위 만주 소수민족인 고유만주인(만주통구스), 거기에 조선인, 일본인 등은 오래된 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탐라기행, pp.277~279)7)

② 뜬금없지만, 나는 사사오입하면 일본어·한국어의 구조는 기원전 먼 옛날, 시베리아에 있었던 퉁구스 언어를 원류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언어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신내림·여우홀림(샤머니즘)등 민속학적인 고문화의 계보도 시베리아·구만주·조선반도·일본이 함께하는 도중에 몇 줄기의 지류가 있던 간에, 한 줄기 물처럼 흘러오고 있다.

(한일 서울의 우정, pp.16~17)⁸⁾

위 인용문과 같이 시바는 한국과 일본은 우랄알타이계의 민족이라는 점을 들어 언어의 구조가 시베리아 퉁구스어를 원류로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샤머니즘 사상을 비롯한 문화적 계보도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①에서는 샤머니즘의 발생지가 시베리아의 퉁구스족이라는 묘사와 함께 언어 또한 동일한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장 커다란 공통점은 샤머니즘의 사제자인 샤먼의 역할로 빙의상태에 들어가는 무속인의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이티간’이라는 몽골어가 무녀나 무당을 뜻하는 일본어인 ‘이치코(巫子)’ 또는 ‘이타코(도호쿠(東北)지방에서 구치요세를 하는 무녀를 일컬음)’와 동일어가 아닌가하는 생각과 동시에 한국의 문서를 예로 들며 시베리아로부터 몽골, 만주, 조선과 일본은 언어와 원시종교의 천성(타고난 성질)을

7) 「シャーマニズムは、はるかな古代、シベリアのツングース種族からおこった。

この種族は、語族としては、トルコ語、モンゴル語、固有満州語、韓国語それに日本語とおなじ仲間(ウラル・アルタイ語族)といていい。つよい言い方でいえば、日本語の遠祖の一つでもある。

この語族諸民族は、大きな共通点をもっている。シャーマニズムを共有しているのである。恍惚の状態になり、憑きものが憑く(憑依状態)という異常な精神転換をおこす。(中略)

ついでながら、モンゴルでは、近代以前、シャーマンは男女とも世襲だった。巫人のことを、モンゴル語でイティガンというが、耳にはイティときこえる。日本語のイチコやイタコと関連がないかどうか。

(中略)

玄容駿教授には、『済州道巫俗の研究』(第一書房刊)

という大著がある。北アジア東アジア全体の視野から精密に集点をしばって行って済州道のシャーマンに正確なピントをあわせたもので、東京大学はたしかこの著作によって氏に社会学博士をおくたはずである。この本をよむと、言語と原始宗教という民族にとっての二つの生得なものに関するかぎり、シベリアのツングース族やモンゴル高原のモンゴル人、いわゆる満州の少数民族である固有満州人(満州ツングース)、それに朝鮮人、日本人などは、古層としての文化を共有しているといわざるをえない。」

司馬遼太郎(1990)『耽羅紀行』, 朝日文庫. (이하, 한국어 번역은 논문작성자에 의함.)

8) 「唐突だが私は、四捨五入してしまえば、日本語・韓国語の構造は、紀元前の遠いむかし、シベリアにいたツングースの言葉を源流としていていると思っている。(中略)

言語だけでなく、たとえば神おろし・狐つき(シャーマニズム)など民俗学的な古文化の系譜も、シベリア・旧満州・朝鮮半島・日本と、途中で幾筋もの枝川があるにせよ、ひとすじの水流のように流れてきている。」 司馬遼太郎 他(1988)『日韓ソウルの友情』, 中公文庫.

보면 공통된 문화의 층을 공유하고 있다는 서술을 하고 있다. ②에서도 마찬가지로 샤먼의 민속학적인 고문화계보 또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이들 지역권의 나라들이 모두 한줄기 물처럼 동일하게 흘러오고 있다고 반복하며 한일 간 무녀의 행태는 시베리아권의 샤머니즘이 원상이라는 점으로 집약되고 있다. 즉 한국의 무당과 일본의 미코로 통용되는 샤먼의 역할 중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 빙의상태에 들어간다는 행위가 동일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 모두 시베리아권에 있는 민족국가임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샤머니즘은 북아시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원래가 북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여러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종교현상이 한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의 환경에 의해 변형이 이루어진, 북아시아 샤머니즘의 전통을 지닌 유형인 것이다. 『삼국지』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280~289)에는 고대 조선의 부족국가 제천의례(동맹, 무천 등)가 기록되어있는데 이는 현행 촌제(村祭)의 원류라고 되어 있다. 즉 고대의 무속신앙은 국가종교의 위치를 차지했으나 신라말기(9세기경)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무불습합화(巫佛習合化)가 진행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유교의 유입으로 무속은 점차로 억압받았지만, 국가적 행사에는 무격이 사제였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가 국교화되자 무격은 하층민으로 취급되어 천시되었으나, 오히려 유교사상에 의해서 여성의 신앙으로 성행하기도 하였다.⁹⁾ 또한 우키바 마사치카(浮葉正親)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무속은 무당이라는 종교적 직능자의 행위나 세계관, 의례의 체계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지만, 위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본의 ‘이치코’ 또는 ‘이타코’로 불리는 무녀(미코)는 대부분이 맹인이고 신내림을 받아 의례를 수행하는 자로 1950년대 일본을 방문한 엘리어드(M.Eliade)가 ‘그녀들은 샤먼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⁰⁾

이렇듯 한국의 무당과 일본의 미코는 신의 사제자로 주술적 행위를 하는 능력자라는 의미가 지배적이지만, 각각의 민족성에 따라 민간신앙의 사제자와 의례수행자로 상이하게 발전되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바가 한일 간 원시종교의 직능자로서 이들의 역할과 원류의 공통점을 부각시켜 반복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단계에서 양국의 샤머니즘사상이 외부종교의 유입에 의해 차별

9) 종교학사전편찬위원회 편(1998) 『종교학 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p.604.

10) 浮葉正親(2005.2) 「日本人の目から見た韓국의巫俗(シャーマニズム)」 『日本研究』, 中央大学校日本研究所, p.227.

화된 요인에 대해 언급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발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3. 한국의 무속신앙과 유교

한국에서 샤머니즘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시기는 선교사인 언더우드(H.G.Underwood)가 『동부아시아』(1910)에서 <한국의 샤머니즘>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무속을 소개하였는데, 이때 무속을 포함한 한국의 전반적인 민간신앙을 샤머니즘으로 칭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용어는 무당, 판수 등 민간신앙과 관련한 지관, 풍수사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었다. 김태곤에 의하면 무속은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전 상고시대부터 한민족의 종교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불교·도교·유교·기독교· 등의 외래종교가 유입된 이후에도 이들 종교와 적층을 이루면서 한민족의 기층적 종교현상으로 존재해왔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¹¹⁾ 따라서 한국의 무속신앙은 정신사적 저류(低流)이자 정신적 원소로서 종교·문화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해왔던 고유한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최길성은 한국 샤머니즘의 기원설에 대해 허버트(H.B.Hulbert), 최남선, 아키바·아카마츠, 엘리아드의 말을 인용하여 북방 샤머니즘에 기인한다고 언급하며 북방이란 유목민족을 가리키고 유목민족의 남쪽인 중국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러한 원류의 추적은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는 일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밝히고 있다.¹²⁾

또한 샤머니즘의 특성을 보면, 유일신을 받드는 종교와 차별화되고 그 의식은 지역적·문화적 조건의 다양성에 상응하여 각국의 민족성에 따라 달리 수행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무속도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으로부터

11) 김태곤(1985) 『韓國巫俗研究』, 집문당, pp.19~22.

12) 최길성에 따르면, 허버트는 한국무당의 기원을 중국으로부터의 전래라고 했고, 최남선은 시베리아 기원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朝鮮文化的 本質」이라는 논문에서 “조선 고유의 민족적 종교로서 지금 또 민간신앙의 주축이 된 무속은 실로 북동아시아 제국민간에 공통된 신앙으로서 학자들이 샤머니즘이라고 부른 원시 종교의 한 형태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키바·아카마츠는 북방샤머니즘의 특징을 예로 들며 한국 무속이 원래는 시베리아나 만주 몽고 계통의 것이면서도 중국이나 인도의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엘리아드는 한국 샤머니즘의 기원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북방 샤머니즘의 변형이거나 남방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하며, 결론적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언급들은 거의 시베리아에 기원을 둔 북방설이라고 주장했다. 최길성(1994) 『한국무속의 이해』, 예전사, pp.17~23.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사람중심의 종교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속신앙은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존중과 의사소통을 전제하여 야생동물과 식물 그리고 총체적 자연자체에 대한 외경심이 없이는 무속인의 의식 상태에 진입할 수 없다. 사회적 계층적 차원에서도 무속은 계급차별과 성차별을 전제로 하는 조선의 성리학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계층과 성별을 초월하는 대동정신(大同精神)의 세계를 구현하였다. 박일영의 표현을 빌리면, 조선시대의 무속은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모여 귀천의 구별없이 의례절차를 의논하고 실천하며 공동체의 대소사를 의결함으로써 연대감을 확인하고 나아가 사회변혁에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주적인 종교의례’ 였다는 것이다.¹³⁾

이러한 한국의 무속신앙에 대해서 시바는 전술과 같이 한일 간 샤머니즘의 원류는 동일하나, 불교나 유교의 외부종교로 인하여 경시되고 천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원시종교는 배척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양국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③ 유교는 일종의 행사이다.

특히 선조를 대하는 제사는 중요하다. 거기에 부모님의 죽음에 치러지는 의식과 매장, 묘제, 상복 등이 큰 의미가 있다. 유교에는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신이나 부처는 없다. 그 사상으로서의 기본은 효인 것이다. (중략)

그러나 유교라는 문명주의에서 보면, 샤머니즘은 어딘지 촌스럽고 야만스럽고 비밀스럽고 또한 바보스럽기도 하다. 이 때문에 무당이나 신방들은 정통권 위인 유교의 입장에서 더욱 멸시되었다. 제일한국인·조선인 사이에서 신방의 가계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략)

일본의 신도에 대해 말하자면, 구메 쿠니타케(久米邦武)가 「제천의 옛 풍속(祭天の古俗)」이라고 했듯이 북아시아·동아시아에 걸쳐 존재했던 샤머니즘이었다. 다만 어느 시기부터 소위 신도의 형태를 취하여 성장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샤머니즘과 그 오래된 뿌리는 하나인 것이다. 다만, 조선사에 있어서 고려시대는 불교에 의해 경시되고, 이씨조선시대는 유교에 있어서 천시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그러한 천시는 없었다.

이점이 양국의 운명을 바꿔냈다고 해도 좋다.¹⁴⁾ (탐라기행, pp.282~286)

13) 박일영(2008) 「샤머니즘 전통 속의 민주주의」 『무속신앙』, 한국민속학회, p.197.

14) 「儒教は、多分に行事である。

とくに先祖に対する祭祀が重い。それに両親の死にともなう儀式や埋葬、墓制のこと、服喪のことが

④ 이씨조선은 노비를 포함하여 몇 종류의 천민을 만들어냈다.

‘성직자’로 일컬어졌던 불교의 승려나 샤먼(무당·신방)들도 천민계급이었다. 유교에 있어서 주자학 절대주의가 그렇게 했던 것이다.

샤먼은 가슴을 펴고 살고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1970년대, 당시의 박정희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일으켰다. 한국근대사에 특필되는 운동으로 농촌근대화나 산업생산력의 확대와 소득의 증대상에서 성과가 컸었다.

그렇지만, 된서리를 맞은 것은 샤먼이었다. 일시에 미신으로 금지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는 유교에 의해 천시되고, 현대에서는 금지의 괴로움에 봉착하는 등, 한국의 신들은 고생이 많다.¹⁵⁾ (탐라기행, pp.296~297)

⑤ [편집부] 이조시대가 되자 불교는 탄압되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공적으로 그 주변에 절이 있지 않고 산속으로 쫓겨갔지요. 거기서 샤머니즘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이번에는 마을로 나오는 그러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중략)

[시바] 그것은 재미있네요. 즉 사찰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과 같은 개념이지만, 중국불교에서의 절은 관청건물이라는 의미로 종교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중국은 아니지만, 조선에는 혹은 『고지키』의 일본에는 이미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신의 장소, 신의 정원이라는 사상이 있었던 것은 역시 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조선문화, pp.272~273)¹⁶⁾

大きいのである。儒教には、キリスト教や仏教のような神・仏はない。その思想としての基本は孝なのである。(中略)

しかし儒教という文明主義からみれば、シャーマニズムはなにやら田舎くさく、夷狄くさく、秘議めかしく、また愚かしくもある。このため、巫堂や神房たちは、正統権威である儒教の立場からはむしろ蔑視された。在日韓国人・朝鮮人の中で神房の家系の人もいるのだが、ことさらにそれをいわないともいわれる。(中略)

日本の神道は、もとをただせば、久米邦武が「祭天の古俗」といったように、北アジア・東アジアにひろく存在したシャーマニズムだった。ただある時間からいわゆる神道のかたちをとって、成長した。この点、韓国におけるシャーマニズムと、古い根は一つなのである。ただ朝鮮史においては、高麗時代は仏教によって軽んじられ、李氏朝鮮時代は儒教によって賤しめられた。日本の場合、そういう賤視がなかった。そのことが、両者の運命を変えたといっている。」

15) 「李氏朝鮮は、奴婢(ぬひ)をふくめて幾種類もの賤民をつくっていた。

「聖職者」とよばれるべき仏教の僧侶やシャーマン(巫堂・神房)たちも賤民階級だった。儒教における朱子学絶対主義がそうさせたのである。シャーマンは、胸を張ってくらしているわけではなかった。一九七〇年代、時の大統領朴正熙氏が、「新しい村(セ・マウル)運動」というものをおこした。韓国近代史に特筆されるべき運動で、農村の近代化や農業生産力の拡大と所得の増大の上で、成果が大きかった。

が、ひどいめにあったのは、シャーマンだった。一時期、迷信として禁止されていたのである。李朝鮮代は儒教によって賤視され、現代では禁止の憂き目にあうなど、韓国の神々は苦勞が多い。」

제시한 문장을 보면 조선에서의 민속종교는 불교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경시되고 천대받았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③에서는 ‘유교’에 대해 서술하며 일종의 ‘행사(行事)’라고 단언하고 있다. 즉 선조에 대한 제사, 양친의 죽음에 따른 의식이나 매장, 묘제 그리고 복장의 문제 등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그 사상의 기본은 ‘효(孝)’라고 했다. 이어서 한국에서는 이 효를 받드는 주체가 남자이고 장남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장례문화를 예로 들고 있다. 즉 남자는 유교에 의한 상복을 입고 유교식 장례를 치루지만, 여자들은 무당을 불러 샤머니즘의 신에게 빌고 귀(鬼, 영혼)를 위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샤머니즘은 여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¹⁷⁾ 이는 전술했듯이 조선의 유교사상에 의해 무속신앙이 여성의 신앙으로 성행되었다는 논리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시바는 샤머니즘에 대해 유교의 문명주의라는 시각에서 볼 때 어딘가 촌스럽고 야만스럽고 비밀스러우면서도 바보스럽기도 하다는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유교국가로 변모한 조선시대의 무당이나 심방들은 전통적 권위인 유교입장에서 보면 하층민으로 멸시되었고, 이로 인해 제일한국인이나 조선인은 지금도 이들의 가계가 무당이라고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의 신도와 비교하며 샤머니즘의 원류는 동일하나 한국과 달리 종교적 형태를 취해 고유한 민족신앙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외부종교에 밀려나지 않았고, 이것이 양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또한 ④에서도 유교의 절대주의 속에서 불교의 승려나 무속인들이 천민계급으로 분류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국가의 근대화 방침으로 미신으로 취급되어 더욱더 천시되었다는 내용도 가미하고 있다. ⑤의 인용문에서는 조선시대의 유교로 인하여 불교와 샤머니즘이 결합되어 민간신앙의 형태로 발전했다는 주취 측에 동조하여 중국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종교의 습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중국의 사찰이 ‘공적인 장

16) 「[編集部] 李朝時代になってきますと、仏教は弾圧されるので、日本のように公けにその辺に寺があるというのではなくて、山の奥に追いやられる。そこでシャーマニズム的なものと結びついて、それがこんどは村へ出てくる、そういうふうな形だったようですね。(中略)

[司馬]それは面白いですね。つまり寺間というのは神域みたいなもの、そういう概念は中国仏教なんで、中国仏教の寺というのは、寺というのは役所の建物という意味でしょう。宗教的な施設ではありませんね。中国にはそれはなくて朝鮮には、あるいは『古事記』の日本にはすでに、ここからここまでは神の場所だという、神の庭だという思想があったのは、やはり習合だと思いますね。」

司馬遼太郎他(1982)『日本の朝鮮文化』, 中央公論新社.

17) 위의 책 『耽羅紀行』, p.283.

소'라는 개념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민속종교의 영역이 불교와 같이 '신의 장소'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습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¹⁸⁾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유교로 인하여 무속은 점차로 억압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숭배되자 무속인은 천민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교사상에 의해 무속은 독자적인 여성의 신앙으로 성장하였다. 더구나 전술과 같이 박일영이 무속신앙에 대해 '남녀노소가 귀천의 구별 없이 의례절차를 의논하며 실천하는 민주적인 종교의례'라고 했듯이 비록 유교의 탄압이 있었다고는 하나, 고유한 민족종교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조선시대 국가체도와 역사적 과정에 비추어볼 때 유교와 무속신앙은 '공식종교-민속종교'의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종교의 조직적 측면과 인적인 구성면에서 공식종교는 제도적 전문화의 뒷받침으로 교리를 세련화하고 종교적 실천을 정례화하고 통일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사회 내에 표준화된 세계관을 제시하는 조직적인 종교이다. 반면 민속종교는 이러한 공식적인 종교의 교리·의례·집단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비조직적인 종교를 뜻한다.¹⁹⁾ 따라서 조선시대에 유교는 조직화된 공식종교였고, 무속신앙은 체제외적인 민속종교로 존속해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일본의 신도와 같이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고유한 민간종교로서 명맥을 유지해왔다고 여겨진다. 단지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시바가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해 외부종교로부터 탄압, 천시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반복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타문화로부터의 수용문제에 있어서 일본적 특성의 습합문화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4. 습합문화에 의한 일본신도

신도는 일본이 태고 때부터 간직하여 온 독자적인 민속신앙으로, 자연을 숭배하거나 조상신을 숭배하는 종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도가 가지고 있는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의 요소는 다른 모든 종교와 동일하다는 공통점을 찾을

18) 이 내용에 대해서는 「4. 습합문화에 의한 일본신도」에서 부연 설명한다.

19) 崔鐘成(2002) 「조선시대 유교와 무속의 관계 연구」 『샤머니즘 연구』, 한국샤머니즘학회, pp.227~229.

수 있다. 원래는 체계가 없는 민중적 종교였으나 외래사상인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이론화되었고, 왕실 및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왔다. 신도의 특징으로는 교리보다 제사와 의례를 중시하고 개인의 구제(救濟)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고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의 성립과 함께 형성되어 오랜 세월동안 여러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그 기본은 곡물신(穀靈)과 조상신(祖靈)에 대한 신앙이었다. 근대 이후에는 교파신도(教派神道)와 신사신도(神社神道)로 분류되었고, 신사신도는 국가신도로서 절대적 권위인 천황제를 수렴하는 피라미드형의 상하 계층적인 조직을 만들어 갔다. 교파신도는 세속적 위치에서 독립하여 종교 본래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천황과는 별개의 권위를 숭배하는 위험분자인 것처럼 몰려 많은 탄압을 받았다. 1945년 패전 이후에는 GHQ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해 정치와 종교가 철저히 분리되어 현재는 신사의 종교로 남아있다. 신도의 용어는 720년에 집필된 『니혼쇼키』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천황은 불교를 믿고 신도를 존중한다(天皇信佛法尊神道)’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는 6세기경에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래된 불교와 공존하는 형태로 신도가 숭상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0세기 무렵부터는 신(神)과 불(仏)은 본래 같으며, 불교의 보살이 일본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신이 되어 나타났다는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이 확산되었다. 이것이 ‘신불습합설(神佛習合說)’로 발달하여 신도는 오랫동안 불교의 영향 하에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해갔다.

이와 같은 신도사상에 대하여 시바는 한국과 일본의 동일한 샤머니즘 사상이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원인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근원적 요소로 불교와 유교의 유입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일본적 특성의 제도적 장치(수용문화)로 인하여 신도가 타종교의 탄압을 받지 않고 고유한 민속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⑥ 신도라는 한자화된 일본어가 문헌상 최초로 나온 것은 불교시대에 들어와서 부터였다. 『니혼쇼키』의 요메이(用明)천황(540~587)의 항목에 처음 나온다. (중략)

신불의 대립은 그 후도 계속되어 정치적으로도 불교 쪽이 훨씬 우세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신도가 부정되거나 천시되어 토속적으로 밀려나갔던 적은 없다. 이것이 일본문화의 특수성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중략)

신도는 헤이안기(平安期)가 되어 사뭇 다른 전개를 했다. 불교와도 습합해 버렸던 것이다. 이른바 신불습합이 그것이다.²⁰⁾ (탐라기행, pp.286~288)

⑦ 그 시기(헤이안기;논고자)가 되면, 본래 조선과 일본이 동일하다는 것에 가까웠던 샤머니즘 쪽에서도 차이가 생겨서 일본적 환경에 적합한 신도가 성립하여 피의 오염을 심하게 꺼리게 된다. 종교상에서의 터브와 인구가 많다는 국력에 대한 자신감, 거기에 중국풍의 율령제국가,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본래 일본인 선조 대다수가 다져왔던 토지를 다른 경지로 취급하게 되었다.²¹⁾

(일본의 조선문화, p.45)

⑧ 8,9세기에 걸친 신불습합은 아마 궁여지책이면서 일본인 최초의 독창적인 착상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 덕분에 드루이드교(ドルイド教)와는 달리, 일본의 신들은 살아남아 한(汗)을 기쁘게 했던 것이다. (중략)

신도에 교의가 없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어찌면 신도는 청음으로 발음하는 정도가 교의였던 것은 아닐까. 그 정도로 신도는 다변(多弁)없이 침묵이 그 내용에 어울렸다. (중략)

신들은 논의하지 않는다. 아이누신앙이 그런 것처럼 산도 강도 폭포도 바다도 각각의 신인 이상, 산은 산의, 강은 강의 본성으로 하나의 신이면서 그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반복하지만, 강이나 산이 불교와 유교와 같이 논리를 만들지 않는다. (이 나라의 모습, pp.26~27, pp.66~67)²²⁾

20) 「神道という漢字化した日本語が文献上最初に出てくるのは、仏教時代に入ってからである。『日本書紀』の用明天皇(五四〇~五八七)のくだりに、はじめて出てくる。(中略)

神仏の対立はその後もつづき、政治的にも仏教のほうがはるかに優勢になるのだが、しかし神道が否定されたり、いやしいとされて土俗の中に追いやられたことはない。このことが、日本文化の特殊性をつくったともいえる。(中略)

神道は平安期になって、別趣な展開をした。仏教とも習合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いわゆる神仏習合がそれである。」

21) 「そのころになると、本来、日朝おなじというに近いものだったシャーマニズムのほうでも違いが出てきて、日本的環境に適った神道が成立し、血の汚れをひどくきらいようになる。宗教上のタブーと、人口が多いという国力についての自信、それに中国風の律令制国家、それらが相乗して、本来日本人の先祖の多くがやってきた土地を異境あつかいにするようになった。」

22) 「八、九世紀における神仏習合は、たぶん窮余の策ながら、日本人最初の独創的な着想だったにちがいない。このおかげで、ドルイド教とはちがいで、日本の神々は生きのび、ハーンをよるこぼせたのである。(中略)

神道に教義がないことは、すでにふれた。ひょっとすると、神道は清音で発音する程度が教義だったのではないか。それほど神道は多弁でなく、沈黙がその内容にふさわしかった。(中略)

神々は論じない。アイヌの信仰がそうであるように、山も川も滝も海もそれぞれ神である以上は、山は山の、川は川の本性として一神ながらに一生きているだけのことである。くりかえすが、川や山が、仏

시바의 역사관(시바사관)은 일본민족의 우수성을 표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²³⁾ 위의 인용문에서도 시종일관 일본고유종교인 신도에 대한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의 문장에서 시바는 신도라는 한자화된 일본어가 문헌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불교의 문화권으로 진입한 시대 이후이고, 초기에는 신·불 대립이 지속되어 정치적으로는 불교가 훨씬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그렇다고 신도가 부정당하거나 천시되어 토속적으로 밀려난 적은 없으므로 이 점이 일본문화의 특수성을 만들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예로부터 일본문화의 특징은 ‘습합’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사면이 바다라는 지형학적인 요소로 인해 도래인(渡來人)으로 부터의 새로운 문화를 배척하지 않는 수용의 정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6세기 경 불교의 유입에 있어서 대립되는 마찰은 있었으나 원시적인 샤머니즘과 결합하여 ‘신도’라는 일본적 종교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⑦에서는 한일 간 동일한 원류였던 샤머니즘이 일본적 환경에 적합한 신도로 발전하며 선조들이 만들어왔던 토지(환경)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해갔다고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⑧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드루이드교²⁴⁾와 같이 외부종교에 밀려 쇠퇴하지 않도록 신도는 불교와 결합했기 때문에 토속적으로 천시되지 않았고, 이는 일본의 독창적 착상임에 틀림이 없다는 내용으로 민족적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른 종교와는 달리 신도는 교의와 논리를 만들지 않고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함께 산과 강을 예로 들며 그 자체가 신이듯이 본질을 추구한다는 묘사로 애니미즘적인 요소가 부합된 전통적 종교라는 점을 내재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앞서 인용한 ⑤와 같이 한국은 조선시대에 확산된 유교문화로 인하여 불교가 탄압되어 산속으로 밀려났고 거기에 샤머니즘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마을로 나온 형태가 무속신앙이라는 문장과 함께, 초기에는 일본과 같이 불교와 습합이 이루어져 중국불교와는 상이한 형태로 존속되었다는 내용을 덧붙

교와儒教のように、論をなすことはない。」 司馬遼太郎(1999) 『この国のかたち』(五), 中公文庫.
 23) 시바 료타로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이복임(2009.12) 『시바 료타로(司馬亮太郎)의 역사관 연구』 『日本語文学』第43輯, 한국일본어문학회.’ 참조.
 24) 드루이드라고 하는 고대 갈리아 및 브리튼섬에 살던 켈트족(族)의 종교를 말한다. 영혼의 불멸·윤회(輪廻)·전생(轉生)을 믿고 죽음의 신을 세계의 주재자로 받드는 것으로 로마인의 침략과 그리스도교의 포교로 쇠퇴하였다. 드루이드 사제(司祭)는 후에 고대 아이슬란드에서 성립된 특수 형태의 문학인 사가(saga) 가운데서, 또는 그리스도교 전설 속에서 마술사로 표현되었다.

붙이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사(寺)’가 관청의 건물이라는 의미로 종교적 시설이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은 신의 정원이라는 사상이 들어있는 장소를 뜻하기 때문에 신도와 동일하게 무속신앙은 습합의 산물이라는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일본은 신도에 불교의 교리가 가미되어 체계화된 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오요로즈’라고 하는 수많은 신들이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신불습합’은 일본문화의 특수한 산물이며 독특한 현상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근대 이후에는 ‘신불분리령’에 의해 국가신도로 확립하는데 있어서도 국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인 전통사상이 부여되어 유교나 불교와는 차별화된 일본적 종교가 완성되었다는 서술로 전개하고 있다.²⁵⁾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원시종교인 샤머니즘의 사상에 불교가 유입됨으로써 습합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무속신앙은 형식을 중시하는 유교의 등장으로 비형식의 민간종교로 하락되었고, 일본의 신도는 불교와 유교의 이론적 체계가 결합된 것으로 여기에 전통적 요소가 가미되어 고유한 민속종교로 발전하여 유지되어왔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한일 간 민속종교인 무속신앙과 신도를 거론하면서 일본문화의 특수성과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바의 샤머니즘 사상은 한일관계의 기본이념으로 내재되었고, 나아가 한국관이나 조선관의 사상적 논리로 정착되어 조선정체론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²⁶⁾

5. 맺음말

한국과 일본은 언어체계가 음운적·형태적으로 우랄알타이족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일한 주류로 인식되고 있다. 시베리아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샤머니즘 사상 또한 고대로부터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양국에 공통된 민속종교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무속신앙으로 일컬어지며 인간과 신령이 무당을 통해 굿이라고 부르는 제의에서 만나 인간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원시적인 종교현상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본의 신도는 자연과 조상신을 숭배하

25) 앞의 책 『この国のかたち』(五), p.69.

26) 시바 료타로의 「조선정체론」에 대해서는 ‘이복임(2016.2) 「일본지식인층에 의한 조선정체론(朝鮮停滯論)연구」 『日本文化学報』第 68輯’ 참조.

는 토속신앙에 외래종교인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이론화되어 고유한 민족종교로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한일 간의 샤머니즘에 대해 일본의 국민작가로 추앙받는 시바 료타로는 그의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대로부터 유입된 타종교와의 연관성에 주력하며 양국의 차별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불교와 유교 등 외래종교의 유입에 의해 원시종교가 흡수 또는 배척됨으로써 민족성에 따른 상이한 형태로 존속해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일본종교인 신도로 발전하게 된 요인에 대해 밝혀가면서 일본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샤머니즘을 토대로 형성된 한국의 무속신앙과 유교의 관계, 습합으로 이루어진 일본종교 신도에 대해 비교분석하면서 차별성과 나아가 독창성까지 내재하고 있는 시바의 사상을 양국의 토테미즘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는 샤머니즘의 종교적 직능자로 한국의 무당과 일본의 미코를 대비시켜 그 행태와 원류가 동일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국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무속신앙과 유교의 관계에 있어서는 타종교로 인하여 민속신앙이 탄압받아 점차적으로 천시되어 고유한 종교로 존속하지 못하고 미신으로 취급받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신도는 외부종교에 의해 밀려나지 않고 습합의 형태로 결합되어 결국은 독창적이고 특수성을 지닌 고유종교로 확립되었다는 서술로 일본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홍분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샤먼의 역할로 병의상태에 들어가는 모습과 행위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고는 하나, 존속되어오는 과정에서 민족성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져 현재는 원형이 상이하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시바는 샤먼의 행태와 주류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무속신앙은 조선시대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한국인의 순수한 종교적 염원을 담고 있는 민속문화로 존속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전승문화 중에 굿거리와 무당춤, 살풀이춤, 특히 전통성악으로 입지적 위치에 있는 판소리는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 최고의 민속악으로 무속은 시대가 바뀌어도 민간 신앙으로서 끈기 있게 사회의 이면을 파고들며 그 민족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무속신앙은 기층문화로 수용되며 새로운 문화와 교호작용을 하면서 한국적 신앙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배재하면서 에세이, 기행, 좌담 등의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무속신앙과 일본신도를 비교하며 습합문화의 특수성만을 강

조하는 샤머니즘에 관한 시바의 사상은 외면할 수 없는 일본적 이데올로기로 문학적 관점에서 주시해야 할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용기(2009) 「샤머니즘의 환경윤리:한국의 무속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화저널』, p.9.
 김태곤(1985) 『韓國巫俗研究』, 집문당, pp.19~22.
 박일영(2008) 「샤머니즘 전통 속의 민주주의」 『무속신앙』, 한국민속학회, p.197.
 엘리야데, 이윤기 역(2001) 『샤머니즘』, 까치, pp.23~24.
 유동식(1997) 『韓國 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 출판부, pp.54~56.
 종교학사전편찬위원회 편(1998) 『종교학 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p.604.
 최길성(1994) 『한국무속의 이해』, 예전사, pp.17~23.
 崔鐘成(2002) 「조선시대 유교와 무속의 관계 연구」 『샤머니즘 연구』, 한국샤머니즘학회
 pp.227~229.
 秋葉隆・赤松智城(1941) 『滿夢の民族と宗教』 大阪屋号書店.
 _____(1938) 『朝鮮巫俗の研究』 大阪屋号書店.
 秋葉隆(1955) 「北アジアの原始宗教」 『アジア問題講座』 9, 創元社.
 浮葉正親(2005.2) 「日本人の目から見た韓国の巫俗(シャーマニズム)」 『日本研究』, 中央大学
 校日本研究所, p.227.
 国学院大学日本文化研究所編(1999) 『神道事典』, 弘文堂, p.153.
 司馬遼太郎(1999) 『この国のかたち』 (五), 中公文庫. pp.26~27, pp.66~67.
 _____(1990) 『耽羅紀行』, 朝日文庫, pp.277~279, pp.282~288, pp.296~297.
 司馬遼太郎 他(1988) 『日韓ソウルの友情』, 中公文庫, pp.16~17.
 _____(1982) 『日本の朝鮮文化』, 中央公論新社, pp.45, pp.272~273.

논문 투고 일자 : 2017. 08. 31.
논문 심사 일자 : 2017.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17. 10. 27.

< 要 旨 >

韓國의 巫俗信仰과 日本의 神道에 關する 研究

- 司馬遼太郎의 「샤ーマ니즘思想」을 中心에 -

李福任

本稿は、司馬遼太郎のシャーマニズム思想を中心に韓国と日本の民族宗教である巫俗信仰と神道に対し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彼は韓国と関連した文学作品で韓・日の土俗信仰と古代から流入した他宗教との連関性に注目しながら、お互いに認識の差について記述している。

すなわち、シャーマンという宗教的能力者である韓国の巫堂と日本の巫女を対比させて、彼らの行為と姿などの原型が似ているという点を挙げて両国の同質性を表している。しかし、シャーマニズムを土台に形成された韓国の巫俗信仰と儒教の関係にあっては、他宗教によって民俗信仰が弾圧された故に、徐々に賤視されて迷信として禁止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一方、日本の神道は外来宗教によって否定されたり、土俗の中に追いやられたことはないから、固有な宗教に成立できたということで、日本人の優秀性を現している。このように韓国の巫俗信仰が朝鮮時代に大きく萎縮したことはあるものの、韓国人の純粋な宗教的念願を込めて現在まで民俗文化に存続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見逃していると思われる。したがって、日本の神道について習合文化の特殊性などを強調している司馬のシャーマニズム思想は注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民族主義の歴史観であるといえる。

A Study on Korean Shamanistic Beliefs and Japanese Shinto

-Based on Shiba Ryotaro's Shamanistic Idea-

Lee, Bok-Lim

In this article, I studied shamanistic beliefs and Shinto, which are folk religions in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I approached these beliefs from the perspective of Shiba Ryotaro. In the literatures, he discussed the differences in cognition of folk religions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focusing on shamanism and foreign religions. He put emphasis on the similarity of the role of the shaman, which is called as "Mudang" and "Mico" in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in that behavior and appearance of shamans are similar in both Korea and Japan.

He also argued that shamanistic beliefs in Korea were considered superstition, and even restricted, since Confucianism originated from the other countries' suppressed folk religions. On the other hand, he discussed the superiority of Shinto based on the fact that it has become a distinct and unique religion by combining foreign and folk religions in Japan.

However, I argue that Shiba Ryotaro's shamanistic idea is based on Japanese nationalism, as he discriminatingly described the superiority of the combinatory nature in Shinto, ignoring that shamanistic beliefs in Korea had been combined into folk culture, while the shamanistic beliefs were largely suppressed after the Joseon Dynasty.